

대중음악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네이버주식회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우수 뮤지션 발굴 및 다양한 대중음악 콘텐츠 제작·홍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상기 기관들(이하 “양 당사자” 라 한다)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(이하 “협력사업” 이라 한다)을 통해 국내 우수 뮤지션을 발굴하고 다양한 대중음악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업무협약의 범위 및 양 당사자의 역할)

양 당사자는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 지원을 통한 국내 우수 뮤지션 발굴 및 다양한 대중음악 콘텐츠 제작·홍보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에 따른 부속 업무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양 당사자는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 지원 사업의 뮤지션 공모 및 각 단계별 평가(온라인 투표, 전문가 평가), 뮤지션 지원 등을 실행함에 있어 상호 적극 협력한다.
 - 가. 양 당사자는 협력사업에 참여할 뮤지션 공모 및 각 단계별 평가(온라인 투표, 전문가 평가), 뮤지션 지원 등을 실행함에 있어 상호 적극 협력한다.
 - 나. 양 당사자는 대중음악 콘텐츠 및 선정된 뮤지션의 온라인 홍보·프로모션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.
2.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
 - 가. 협력사업의 일정 수립, 홍보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 총괄
 - 나. 심사위원 및 멘토, 뮤지션 선정
 - 다. 공연 관련 전체 업무 진행
3. 네이버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
 - 가. 최종 우승팀에 대한 상금 1억원 지원
 - 나. 결선 진출 20개 팀에 대한 공연 생중계 지원(V앱)
 - 다. 협력사업 지원자 접수 창구 제공(뮤지션리그)

- 라. 본선 진출자에 대한 투표 기능 지원(VIBE 앱)
- 마. 기타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한 협력사업 홍보 지원

제3조 (협력사업의 수행)

양 당사자는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경우 상호 간 서면(e-mail포함)으로 합의하여 정한다.

제4조 (정보 제공)

양 당사자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, 고객 등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제5조 (신의성실의 의무)

양 당사자는 본 협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6조 (비밀유지의 의무)

양 당사자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획득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, 배포 또는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.

제7조 (손해배상)

양 당사자는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, 본 협약 또는 관련 법령 상의 의무 위반 등 일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8조 (협약기간)

1. 본 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.
2. 전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기간이 1년 단위로 연장되나, 연장된 협약기간 중 적용될 협약 조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기로 한다.

제9조 (협약의 변경)

1. 양 당사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2. 본 협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며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명날인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.





제10조 (협약의 해석 등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,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하여 해결한다.

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,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3월 22일

주식회사 네이버 한국콘텐츠진흥원
대표이사 한성숙 원장 김영준

